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⑩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 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남아에서 한국에 취업 온
청년 넷이 밴드를 만들어 연습하다가
저녁 무렵 도심 지하보도에서
처음 한국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공연 준비를 마치자
노인네들이 몰려와 둘러쌌다

기타는 스페리칸 베이스는 비에트나미즈
드럼은 캄보디아인 신시사이저는 필리피노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연주자들은
낡은 악기로 로큰롤을 연주했다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고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댕다

막춤을 신나게 추던 노인네들은
연주자들이 브루스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얼떨떨해하다가
노인 한 분과 노파 한 분
다른 노인 한 분과 다른 노파 한 분
양손으로 살포시 껴안고
양발로는 엇박자가 나도 들었다

미소 짓던 ㉠동남아 청년 넷은
저마다 고국에 계신 노부모님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 없었다 싶으니
더 정성껏 연주하고
㉡노인네들은 저마다 자식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이 없었다 싶으니
더 흥겹게 춤을 추었다

(나) 구미호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이야기 소재이다. 현대에 와서도 구미호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한다. 드라마에서 ㉢구미호는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인으로 변신하여 나무꾼의 아내가 된다. 그리고 인간이 되기 위한 혹독한 시련을 견딘다. 여기서 드라마는 ㉣'구미호의 인간되기 과정'을 특히 강조하여 보여준다.

구미호는 원래 살아있는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금기를 지키는 동안 구미호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돌보기는커녕 샅바느질과 집안 일에 매달린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시어머니의 냉대 또한 묵묵히 견뎌낸다. 이처럼 드라마는 구미호가 인간과 어울려 살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제거하고, 착한 아내와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인간보다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적이다. 구미호는 스스로 금기를 지키고 인간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과의 신뢰를 지켜 줄 인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미호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구미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구미호 자신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질서로 편입되지 못한 구미호는 경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 초기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에 근거했다. 동화주의는 각 문화를 존중하고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 간의 우월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즉,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 문화 구성원이 다수 집단이라는 커다란 사회 속으로 융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주류 문화에 융해되어 소외된 존재가 되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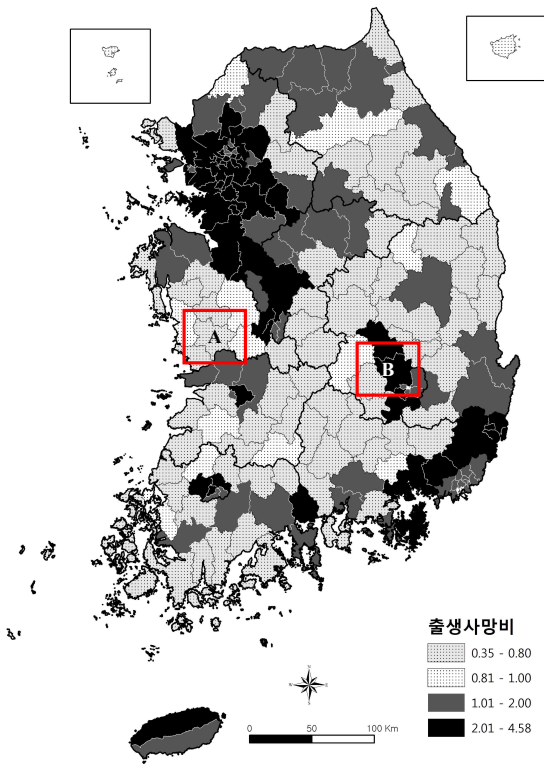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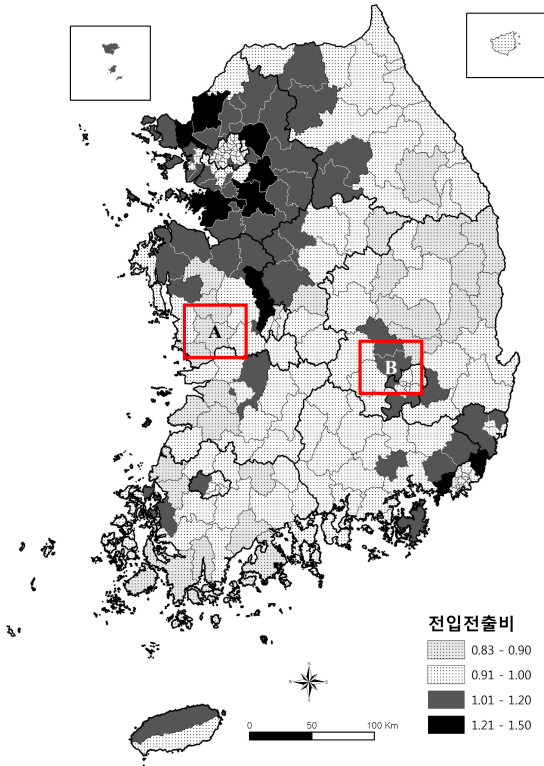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한 국가 내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불가피해졌다. 대부분의 나라는 나라 안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상생을 권유한다. 이러한 맥락 위에 다문화주의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한 나라 안에 혼재된 문화의 공존을 위해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자는 의도일 뿐 아니라 상생의 의미를 내포한다. 소수의 이주자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각은 한 사회 내의 차이를 지닌 소수자 및 소외된 계층에게도 확장하여 적용 가능하다.

1-1. 위의 ㉠, ㉡, ㉢가 지닌 공통된 의미에 근거하여, (가)의 주제를 (다)의 단어를 활용하여 쓰시오. (40자 이내) [20점]

1-2. (다)를 바탕으로 밑줄 친 ㉣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4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도는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의 시군구별 전입전출비 및 출생사망비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전입전출비 = 전입인구/전출인구, 출생사망비 = 출생자수/사망자수).



(나)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상점의 상권 범위는 상품 가격과 상품(재화 혹은 서비스)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상점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교통비가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상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하면서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수요는 줄어들고, 어느 지점을 지나면 수요는 0이 된다.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는 않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한다. 한편, 상점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 해당 상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상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가 확보되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수요수준을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 한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권 내 수요량이 최소 요구치 수준보다 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2-1. 2001년 (가) 지도의 A와 B 지역에서 ○○ 유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상점의 수가 각각 10개씩 조사되었다고 하자. (나)를 바탕으로 2015년에 조사된 동일 유형의 상점 수가 2001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 혹은 ‘감소’로 추정하시오. 단, 상점의 규모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점]

① A지역 상점 수: _____, ② B지역 상점 수: _____.

2-2. (나)에서 제시한 개념을 이용하여 ‘100원 택시’가 읍내에 있는 상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근거를 들어 추론하시오. 단, 상점의 수를 포함하여 다른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120자 이내) [30점]

<보기>

2012년 △△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주민이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내려주는 ‘100원 택시’라 불리는 교통 시스템을 도입했다. 택시기사는 3km 이내 버스정류장에 주민을 내려주고 요금 100원을 받는다. 차액은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한다.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 버스정류장에 가야 했던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읍내와 시장을 오갈 수 있게 됐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을 통해서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체제이다. 대의 민주주의 옹호론자에 따르면 현대 정치체제로서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불가피하고 우월하다. 먼저, 규모의 제약을 고려하면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완전한 정부의 이상적 형태’는 대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둘째, 복잡한 현대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경쟁을 통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혁명과 차티스트 운동으로 대표되는 참정권 확대 운동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나)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서는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고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한다.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이 가진 권한을 위임하면서 대리인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다. 하지만 주인은 대리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대리인이 가진 전문성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혹은 기준에 미달하는 대리인과 계약하는 문제가 생기곤 한다.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또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대리인이 하는 노력과 행위에 대해서 주인이 완벽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리인은 약속과는 달리 위임받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른다.

(다) 인민주권은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였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끈 페리클레스는 “나는 우리의 정부 조직이 이웃 국가들의 제도를 모방하지 않았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본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민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전 시민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라고 역설하였다.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기관이었던 민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법률제정과 과세와 같은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핵심 기관인 500인 평의회는 민회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일상의 행정을 처리하는 기구였다. 평의회 구성원은 아테네 전역에서 매년 추첨을 통해서 선발되었다.

3-1. (나)에서 제시된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가)의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40점]

3-2. (다)의 관점에서 (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각각 50자 이내) [20점]

<보기>

- ㉠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도입한다.
- ㉡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 ㉢ 국민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 ㉣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 평등의 근거는 ‘도덕적 인격’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도덕적 인격이란 정의감, 즉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것은 평등한 존재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 인격체로서 평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의감의 능력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특성을 평등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영역 성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해결된다. 예를 들어 어떤 원의 내부에 들어 있는 점들은 그 좌표나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원의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영역 성질을 갖는다. 원의 내부에 있는 어떤 점은 원의 내부에 있는 다른 점보다 더 내부에 있거나 덜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영역 성질을 갖게 된다. 원의 내부에 있는 점과 원의 외부에 있는 점만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영역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영역 성질 개념을 인간 평등 문제에도 적용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일단 어떤 최소치만 만족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도덕적 인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최소치조차 갖고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인격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 정의감의 능력을 잠재적이라고 할지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 능력이 개발되어 실제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아와 어린이도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능력의 가능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도 평등한 존재로 간주된다.

(나) 평등의 근거를 지성, 도덕성, 정의감, 합리성과 같은 자연적 특성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적 특성을 동등한 수준으로 갖고 있지 않기에 합리성, 도덕성 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등의 근거를 이익, 즉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하여 어떤 존재가 이익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존재를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여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권리가 인간 이외에 동물에게도 있음이 인정되는 날이 올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함부로 고통을 줘도 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다리의 숫자, 피부에 털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감각이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방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날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성의 능력인가, 혹은 의사소통의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자란 말이나 개는 하루나 1주일이나 1개월이 된 유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을 더 잘 하고 훨씬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이다.”

이 글에서 벤담(J. Bentham)은 한 존재가 평등한 고려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결정적 특징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능력에서 찾고 있다. 지능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감각이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 된다.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을 가지는 데 충분조건이 된다. 돌맹이는 이익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쥐는 때린다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갖는다. 만일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는 없다. 이처럼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4-1. (가), (나) 주장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150자 이내) [30점]

4-2. (나)의 입장에서 (가)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게 비판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30점]

<보기>

- 갑: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두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
- 을: 정의감의 능력은 타고난 자연적 특성으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평등의 근거로 삼는다면 인종 차별주의의 문제가 발생하겠군.
- 병: 감각은 있지만 정신적 장애가 심해서 정의감을 영구적으로 갖지 못한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에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겠군.
- 정: 유아는 동물보다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아에게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
- 무: 많은 동물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동물들을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성별 임금격차란 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균임금 차이를 말한다. 성별 임금격차는 이미 19세기부터 논의가 되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깊은 문제이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권의 신장과 함께 성별 임금격차가 점차 완화되어왔지만 여전히 믿을만한 통계가 작성되는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14.1%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성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인 룩셈부르크에서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5% 가량 낮다.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완벽하게 동일한 직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노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거의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는 유사한 직무를 하는 노동자라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기업에게 이와 같은 원칙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면 임금격차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직업은 한 쪽 성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경우 남녀가 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나아가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이란 서로 직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직무의 유사성과는 상관없이 직무의 난이도, 필요한 교육수준, 중요성 등이 비슷하다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기업의 성차별이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성별 임금격차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현실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기업의 성차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남녀 간의 생산성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는 남녀 간의 선천적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력, 교육년수, 가사 및 육아노동에 대한 부담 등 사회적 차별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통계를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남성 노동자가 경력이 많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적게 진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높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부담 때문에 잠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 부담이 덜해졌을 때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 복귀가 되더라도 경력 면에서 뒤떨어져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즉, 남녀임금 격차는 기업의 성차별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차별적 현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성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다.

.....

5-1. <보기>의 주장이 기초로 삼고 있는 원칙을 제시문에서 찾으시오. [10점]

<보기>

우리 병원의 간호사와 전산관리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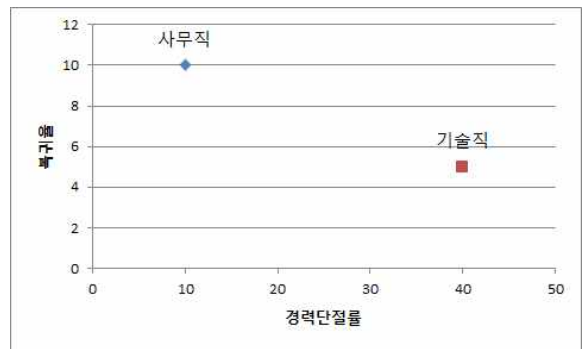
_____ 원칙

5-2. ㉠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20점]

5-3. 다음 그래프는 A국의 여성 경력단절률과 복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의 내용과 다음의 그래프에 근거하여 <보기>의 ㉡를 반박하는 논거를 제시하시오(반드시 제시문과 그래프에서 찾은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50자 이내) [30점]

<보기>

나는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해. A국의 통계를 보면 기술직의 임금이 사무직보다 훨씬 높아. 그런데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비슷한 성적으로 졸업하더라도 기술직보다는 사무직을 택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거든. 여성들이 스스로 임금이 낮은 직종을 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별 임금격차는 성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해.



• 경력단절률:

$$\frac{25 \sim 29\text{세 여성 취업자 수} - 30 \sim 34\text{세 여성 취업자 수}}{25 \sim 29\text{세 여성 취업자 수}} \times 100$$

• 복귀율:

$$\frac{40 \sim 44\text{세 여성 취업자 수} - 35 \sim 39\text{세 여성 취업자 수}}{40 \sim 44\text{세 여성 취업자 수}} \times 100$$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문과 예술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타락했다. 우리의 쓸모없는 호기심 때문에 야기된 불행은 아주 오래되었다. 대양의 조수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우리를 비취주는 천체의 운행에서 영향을 받지만, 풍속과 정직성이 학문과 예술의 진보에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덜하다. 우리는 우리의 지평선에 학문과 예술의 빛이 떠오름에 따라 미덕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학문과 예술의 원초적 결합은 그 목적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즉, 학문과 예술은 그 자신에게 양식이 되는 사치를 추구한다. 사치는 인간의 무위도식과 허영심의 성격을 가진 죄악으로서 풍속을 해치고 인간을 불성실하게 만든다.

선량한 풍속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 중요하다. 초기의 페르시아는 쓸모없는 지식의 오염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찍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덕과 정직함을 가르침으로써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었다. 이 시대의 썩은 풍속에 대해 미래의 세대들은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영혼의 지배자인 신이시여, 선조의 유해한 예술과 지식에서 저희를 해방시켜주소서. 비록 가난하더라도 저희의 무지와 순진을 되돌려 주소서. 이것만이 저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루소, 「학문예술론」)

(나) 루소는 ㉠자연의 상태를 선호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인류가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술과 학문을 통해 고도로 문화화되었으며, 각종 사회적 예의범절에 관한 한 과도할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명화되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미 도덕적으로 성숙해 있다고 간주하기에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덕적으로 선한 심성에 기초하지 않은 문화와 문명은 걸만 번지르르할 뿐이며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사고방식을 계몽시키기 위해 도덕성의 성숙을 위한 ㉡내적 교육에 힘써야 한다. (칸트,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회 이념」)

6-1. ㉠과 ㉡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각각 60자 이내) [20점]

‘자연의 상태’란 _____

‘내적 교육’이란 _____

6-2. (가)와 <보기>에 나타난 예술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80자 이내) [40점]

<보기>

음악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자신의 교양과 해박함을 표현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지적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 과시에는 은연중에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음악에 대한 기호(嗜好)만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분류 기준도 없다. 이러한 미적인 구별짓기는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혐오와도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삶의 양식에 대한 혐오는 드러나지 않게 계급적인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미학적 느낌이라는 개인적 취향의 결과가 아니라 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